

“자기 인생문제를 진실로 느끼고 깨달아야 해”

묵산 스님 (보림선원 조실)

서울 정릉의 삼각산 기슭에 자리잡은 보림선원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와 민가들이 보이지만, 숲으로 둘러싸인 산 중턱에 위치하다 보니 고즈넉한 산사 분위기가 나는 아담한 절이다. 한국의 유마 거사로 불린 백봉 김기추(白峯 金基秋, 1908~1985)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의 근본도량인 이곳에는 백봉 거사의 도반이자 제자였던 묵산 큰스님이 출·재가 선객들을 지도하고 있다.

구랍 30일부터 1월 5일까지 제70회 일주일 철야옹맹정진을 회향한 보림선원은 유서 깊은 도심선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3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참선법회는 거사선종(居士禪風)을 일으킨 백봉 거사의 테이프 법문 들기와 좌선을 병행하며 1주일간 자기 알고 참선하는 수행프로그램이다. 철야정진 기간 내내 묵산 큰스님은 미수(米壽, 88세)의 고령에도 잠을 자지 않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며 재가 수행자들과 함께 법회를 회향했다.

1월 6일, 보림선원 일주문에 들어서니 얼룩 멍멍이가 개집에서 나와 활활 쫓는다. 지난해 여름 일주일 철야정진에 동참했던 기사를 알아보았는지, 멍멍이는 사진기자에게만 겁을 준다.

조실방에 들어서니 큰스님이 기사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이한다.

“난 또 누구라고. 앉으시오.”

큰스님은 여전히 건강하고 목소리도 우렁차지만 귀가 어두워져서 대화할 때는 큰소리로 고함치듯 해야만 했다. 하지만 질문을 알아들으면 폭포수 같은 장광설(長廣舌)로 법문을 토해내셨다. 말귀를 못 알아들 때면 필담(筆談)을 써가며 한 대답은 오히려 박진감을 더했다. 찌렁찌렁한 큰스님의 목소리와 유쾌한 웃음이 문답에 끊임없는 긴장감을 준 탓이다.

큰스님은 예상대로 일주일 철야정진에 대한 소감으로 법문을 여신다.

“이번 일주일 철야정진에는 30명이나 동참했습니다. 국민대 총장을 지낸 분과 의정부지원 판사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아주 훌륭하게 정진을 잘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백봉 거사님의 법문은 <금강경> <선문연승> <선시> 등을 설법한 것이지요. 주 내용은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懼); 모든 것의 근원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라는 공도리(空道理)를 설한 것입니다. 내 자체가 허공이고 부처다 하는 걸 철저히 실감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주옥같은 법문이었습니다.”

-큰스님께서 이번 옹맹정진을 회향하면서 어떤 법문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법문을 안했습니다. 다만 이런 말은 했지요.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다 틀렸다. 백봉 거사도 다 틀렸다. 천하 노화상도 다 틀렸다. 억(礙)!’”

-그럼, 큰스님만 옳으신 겁니까.

“하! 하! 하! 청정법신은 내외가 없고, 거래(去來)·생사가 끊어진 광명이자 묘용(妙用)도리예요. 지식과 관념으로 불법을 의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공에서 머물며 생활하지만, 자기 살림살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불가사의하고 불가설(不可說)한 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 해도 죽음이 아니고, 산다고 해도 삶이 아닙니다. 생사와 사람 자체가 공하고, 범부와 성인이 모두 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문제를 진실로 느끼고 깨달아야만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달마 스님이 9년간 묵언하며 변백정진을 하고 서산 대사가 10년간 옹맹정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산 대사는 한 글자도 설한 바 없는 도리를 이렇게 설했지요.

천계만사량(千計萬思量; 천 가지 계획 만 가지 생각)

홍로일점설(紅爐一點雪; 붉은 화로 속 한 송이 눈일세)

니우수상행(泥牛水上行; 진흙소가 물위를 가니)

대지허공열(大地虛空烈; 하늘과 땅이 갈라 지네).”

어요. 절대성으로서의 인간주체인 주인공이 청산(靑山)도, 백운(白雲)도, 우주도 창조합니다. 마음을 잘 쓰면 극락이 펼쳐지고 잘못 쓰면 지옥이 벌어져요. 내 마음에서 극락과 지옥을 창조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 만명의 스님이 있고 2000만 불자가 있는데, 국민들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참다운 불교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견성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전강 스님이나 설봉 스님, 백봉 거사 같은 도인들이 살아계실 때는 훌륭한 설법으로 많이 교화가 되었지요. 우리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느끼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일을 하는 가운데 철저히 자기 본래면목을 깨달아야 해요. 불교는 지금 현실에 즉(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거든요. 과거나 미래에서 그 무엇을 찾는 건 망상일 뿐입니다.”

-국내외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와 전쟁과 갈등으로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희망을 갖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원효, 의상, 법일, 서산, 사명 대사와 같은 대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물질로 고통을 받고 남북이 분단되고 지구촌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지만 멀지 않아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도 이뤄질 거예요. 사해동포(四海同胞)의 세상이 되려면 무엇보다 화합이 이뤄져야 해요. 사람이 없다면 지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총·칼이 필요 없는 세상이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악



묵산 스님은 1922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1940년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43년 광명사에서 금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4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1959년 해인사에서 인국 스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해인사 보문사 수덕사 칠불암을 비롯해 오대산 등지의 선원에서 70세까지 수행정진했다. 1975년 서울 정릉에 보림사를 창건했으며, 1996년부터 매주 토요일 재가불자들의 주말철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내 자체가 허공이고 부처다’ 확신해야

내 마음에서 극락·지옥 창조하고 수용

사농공상 일하는 가운데 본래면목 깨달아야 해

-이 계승에서 진흙소는 무엇입니까?

“말과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각(覺)의 자리예요.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과 같은 도리지요. 몸뚱아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마음 이어서 견문각지(見聞覺知)하는 자리가 자성이요 불성이요 심성 자리인데, 자기 자체를 알 도리가 없

을 짓지 말고 수행으로 덕을 닦고 선근을 심어야 해요. 불법인연이 지중함을 알고 12시중(時中)에 불법을 머리에 새기고 수행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불법을 잊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니어야 할텐데요. 예를 들

기축년 인도불교성지순례는 파초여행사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들 영혼의 고향 인디아!!!
인도성지 순례는 수행자는 물론 불자라면 한 번은 다녀와야 할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영지를 순례하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요, 복진을 짓는 길입니다. 또한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갑을 닫는 것은 더욱 어렵게 합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지갑을 여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길입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성지순례!
내 영혼을 위해! 경제를 위해! 떠나자.

회차	일정	중점내용	동참금
제1차	2009. 2. 26 ~ 3. 8 (11일)	8대성지 순례	279 만원
제2차	2009. 3. 26 ~ 4. 9 (15일)	8대성지+인도,네팔 세계문화유산	359 만원
제3차	2009. 4. 30 ~ 5. 7 (9일)	4대성지 순례	259 만원
제4차	2009. 10. 22 ~ 11. 1 (11일)	8대성지 순례	279 만원
제5차	2009. 11. 26 ~ 12.6 (11일)	8대성지 순례	279 만원
제6차	2009. 12. 24 ~ 2010. 1. 7 (15일)	8대성지+인도,네팔 세계문화유산	359 만원

* 출발 3개월 전 예약자 5% 할인해 드립니다.
* 부산 출발/도착 기준입니다.
* 상기 내용은 환율 및 현지, 항공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행사주관: **파초여행주식회사** 전화: 051-808-7370 전송: 051-704-2355

화제의 신간

해심래정 택일지

365일 매일 한 장씩!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게 뽑아놓은 래정비법!

4x6배판/갈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특초귀정음 개연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성이 들어 있는지, 들어오는 순간 열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공개!**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하찮아져 있고 단단히 할 수 있는 비법 공개!
80년차 일진명도 한눈에 훑어 알 수 있게 조사법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귀학역초스님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입금계좌(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H.P : 010-3813-4443 신한 010-3813-4443